

〈譯註〉

『新唐書』 권215하, 突厥傳下, 西突厥 譯註*

特 昊 冉 **

西突厥은 그 선조가 訥都陸[設]의 손자인 吐務로, 大葉護라고 불렀다.¹⁾ 長子는 土門으로 [552년 정월 가한 즉위 이후] 伊利可汗이라고 하였고,²⁾ 次子는 室點蜜이라고 하였는데 瑟帝米라고도 하였다.³⁾ 슬제미의 아들은 達頭可汗⁴⁾이라 하였는데, [자립 이후] 步迦可汗라고도 하였다.⁵⁾ 이

* 『新唐書』 권215하, 『突厥傳』下, 中華書局標點本, 6055~6057쪽을 저본으로 하였고, 동북아역사재단 편, 『新唐書 外國傳 譯註』上, 동북아역사재단, 2011, 181~193쪽을 참조하였다. 원문을 병기하거나 내용을 보충할 경우에는 [], 용어를 설명할 경우에는 ()를 사용하였고, 중국 정사는 中華書局標點本을 이용하였다.

** 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 1) 『訥都陸設』은 건국신화에 등장하는 돌궐의 전설적인 영웅이고, ‘大葉護 吐務’는 돌궐의 초기 추장으로 추정된다. 돌궐의 건국신화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정재훈, 『돌궐 유목제국사 552~745 -아사나 권력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 사계절, 2016, 42~131쪽 참조.
- 2) 『周書』 권50, 『異域下·突厥傳』, “魏廢帝元年正月, 土門發兵擊茹茹, 大破之於懷荒北. 阿那瓌自殺, 其子菴羅尼奔齊, 餘衆復立阿那瓌叔父鄧叔子爲主. 土門遂自號伊利可汗, 猶古之單于也. 號其妻爲可賀敦, 亦猶古之闕氏也”(909쪽); 『資治通鑑』 권164, 梁 元帝 承聖 원년(552) 정월 조, 中華書局, 5077~5088쪽.
- 3) 西突厥可汗의 후예인 阿史那懷道の 墓誌銘에는 “五代祖室德媚可汗, 鷹揚雲中, 虎據天外. 橫行者五十萬衆, 闕角者卅六蕃”라고 하는데(錢春麗, 『唐濠池大都護阿史那懷道墓誌考』, 『文博』 2016-1), 이때 ‘室德媚’는 ‘室點蜜’, ‘瑟帝米’와 마찬가지로 모두 音寫의 차이이다.
- 4) 『隋書』 권84, 『北狄·突厥傳』, “達頭者, 名玷厥, 沙鉢略之從父也, 舊爲西面可汗”(1868쪽).
- 5) 『通典』 권199, 『邊防』15, 北狄6, 突厥下の 原注, “達頭舊爲西面可汗, 初與沙鉢略有

전에 東突厥과 분리되면서 烏孫의 옛 땅을 차지하였는데, 동쪽으로는 [동]돌궐, 서쪽으로는 雷蕪海,⁶⁾ 남쪽으로는 疏勒, 북쪽으로는 瀚海에 이르렀고, 京師에서 곧장 [서]북쪽으로 7천리에 위치하였다. 焉耆에서 서북쪽으로 7일을 가면 남쪽 아정[南庭]에 이르렀고 [남쪽 아정에서 다시] [정]북쪽으로 8일을 가면 북쪽 아정[北庭]에 이르렀는데, 都陸·弩矢畢·歌邏祿·處月·處密·伊吾의 여러 족속과 섞여 있었다.⁷⁾ 그 풍속은 대체로 [동]돌궐과 [같았지만], 언어는 조금 달랐다.⁸⁾

이전에 [572년]⁹⁾ 동돌궐 木杆可汗이 죽자 그 아들 大邏便을 제쳐두고 아우인 佗鉢可汗을 세웠다. [581년] 타발가한이 죽기 전 자신의 아들 菴羅에게 반드시 대라편을 세우도록 분부하였으나, 國人들이 그 어머니가

隙, 遂分爲別部, 因東可汗雍虞閼死後, 自立爲步迦可汗. 達頭死後, 其孫射匱微弱, 不得爲可汗”(中華書局, 5453쪽). 『자치통감』 권178, 隋 文帝 開皇 19년(599) 12월 조에는 “乙未, 都藍爲部下所殺, 達頭自立爲步迦可汗, 其國大亂”(5569쪽)이라고 하여, 달두가한이 자립하여 보가가한을 칭한 시기를 개황 19년(599) 12월이라고 한다.

- 6) 『北魏』 酈道元 注, 『水經注』 권2, 河水, “又南入蔥嶺山, 又從蔥嶺出而東北流. [注: …… 河水與蜺羅跂禰水同注雷蕪海. ……]”(陳橋驛 校證, 『水經注校證』, 中華書局, 2007, 34~36쪽). 대체로 지금의 아랄 해 혹은 카스피 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 7) 『통전』 권199, 「邊防」15, 北狄6, 突厥下, “其國居烏孫之故地, 東至突厥國, 西至雷蕪海, 南至疏勒, 北至瀚海, 在京師西北七千里. 自焉耆國西北七日行, 至其南庭, 自南庭又正北八日行, 至其北庭. 鐵勒·龜茲及西域諸國, 皆歸附之. 其人雜有都陸及弩矢畢·葛邏祿·處月·處密·伊吾等諸種”(5452쪽).
- 8) 『舊唐書』 권194下, 「突厥傳」下에는 “其官有葉護, 有特勤, 常以可汗子弟及宗族爲之, 又有乙斤屈利啜·閻洪達·頡利發·吐屯·俟斤等官, 皆代襲其位”(5179쪽)라고 하여 서돌궐의 관제가 기술되어 있는데, 『통전』 권199, 「邊防」15, 北狄6, 突厥下, 5453쪽에 의거한 것이다.
- 9) 『자치통감』 권171, 陳 宣帝 太建 4년(572) 是歲 春, “突厥木杆可汗卒, 復捨其子大邏便而立其弟, 是爲佗鉢可汗. 佗鉢以攝圖爲爾伏可汗, 統其東面, 又以其弟禰但可汗之子爲步離可汗, 居西面”(5314쪽).

천하다고 하여 세우려 하지 않았고 결국 엄라를 세웠다.¹⁰⁾ 엄라는 이후 목간가한의 형인 [阿逸可汗의] 아들인 攝圖에게 양위하니, 바로 沙鉢略可汗¹¹⁾이었다. 그러나 대라편은 따로 阿波可汗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부락을 신하로 삼았다.¹²⁾ [583년 5월] 사발락가한이 그를 습격하여 그 어머니를 살해하자 아파가한이 서쪽으로 달두가한에게 달아났다. 이 무렵 달두가한이 西面可汗이었는데, 바로 아파가한에게 병사 10만을 주어 동돌궐과 싸우게 하였다.¹³⁾ [587년 4월] 그러나 아파가한은 결국 사발락가한

10) 『자치통감』 권175, 진 선제 태건 13년(581년) 是歲 苻, “突厥佗鉢可汗病且卒, 謂其子菴邏曰, ‘吾兄不立其子, 委位於我. 我死, 汝曹當避大邏便.’ 及卒, 國人將立大邏便. 以其母賤, 衆不服, 菴邏實貴, 突厥素重之. 攝圖最後至, 謂國人曰, ‘若立菴邏者, 我當帥兄弟事之. 若立大邏便, 我必守境, 利刃長矛以相待.’ 攝圖長, 且雄勇, 國人莫敢拒. [胡三省注: 攝圖爲小可汗, 統東面部落, 又逸可汗之子, 故長] 竟立菴邏爲嗣.”(5449쪽), 『수서』 권84, 「北狄·突厥傳」, 1865쪽.

11) 『통전』 권197, 「邊防」13, 北狄4, 突厥上, “後攝圖立爲大可汗, 號伊利俱盧設莫何始波羅可汗, 一號沙鉢略. 理都斤山”(5404쪽).

12) 『자치통감』 권175, 진 선제 태건 13년(581년) 是歲 苻, “大邏便不得立, 心不服菴邏, 每遣人置辱之. 菴邏不能制, 因以國讓攝圖. 國中相與議曰, ‘四可汗子, [胡三省注: 四可汗, 謂逸可汗及木杆可汗·褥但可汗·佗鉢可汗.] 攝圖最賢.’ 共迎立之, 號沙鉢略可汗, 居都斤山. 菴邏降居獨洛水, 稱第二可汗. 大邏便乃謂沙鉢略曰, ‘我與爾俱可汗子, 各承父後, 爾今極尊, 我獨無位, 何也?’ 沙鉢略患之, 以爲阿波可汗, 還領所部”(5449~5450쪽), 『수서』 권84, 「北狄·突厥傳」, 1865쪽.

13) 『자치통감』 권175, 陳 長城公 至德 원년(583) 5월 苻, “沙鉢略素忌阿波驍悍, 自白道敗歸, 又聞阿波貳於隋, 因先歸, 襲擊北牙, 大破之, 殺阿波之母. 阿波還, 無所歸, 西奔達頭. 達頭大怒, 遣阿波帥兵而東, 其部落歸之者將十萬騎, 遂與沙鉢略相攻, 屢破之, 復得故地, 兵勢益強, 貪汗可汗素睦於阿波, 沙鉢略奪其衆而廢之, 貪汗亡奔達頭. 沙鉢略從弟地勤察, 別統部落, 與沙鉢略有隙, 復以衆叛歸阿波, 連兵不已, 各遣使詣長安請和求援. 隋主皆不許”(5465쪽). 이후, 아파가한은 달두가한의 지원으로 상당 부분 세력을 회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즉 『자치통감』 권176, 진 장성공 지덕 3년(585) 5월 苻에는 “初, 突厥阿波可汗既與沙鉢略有隙, 阿波浸強, 東距都斤, [胡三省注: 都斤, 突厥中山名, 沙鉢略初立, 建牙於此山.] 西越金山, 龜茲·鐵勒·伊吾及西域諸胡悉附之, [胡三省注: 伊吾之地, 吐屯設主之, 蓋突厥所署置也.] 號西突厥. [胡三省注: 突厥自是爲東·西.] 隋主亦遣上

에게 사로잡혔다.¹⁴⁾ 啓民可汗 시기(599~609)에 이르러 달두가한이 해마다 병사를 거느리고 서로 [공격을] 가하였지만,¹⁵⁾ 隋가 항상 계민가한을 원조하였기 때문에 [603년] 달두가한이 패하여 吐谷渾으로 패주하였다.¹⁶⁾

이전에 아파가한이 사로잡히자 國人들이 鞅素特勒의 아들을 세우니, 바로 泥利可汗이다.¹⁷⁾ 달두가 [토욕혼으로] 달아나고 이리가한 역시 패하여 죽자 그 아들 達漫이 즉위하니, 바로 泥獺處羅可汗으로¹⁸⁾ 정치가

大將軍元契使于阿波以撫之”(5482쪽)라고 한다.

- 14) 『자치통감』 권176, 진 장성공 禎明 원년(587) 4월 조, “沙鉢略尋卒, 隋爲之廢朝三日, 遣太常弔祭. 初, 沙鉢略以其子雍虞閭懦弱, 遺令立其弟葉護處羅侯. … 遣使相讓者五六, 處羅侯竟立, 是爲莫何可汗. … 隋使車騎將軍長孫晟持節拜之, 賜以鼓吹·幡旗. 莫何勇而有謀, 以隋所賜旗鼓西擊阿波, 阿波之衆以爲得隋兵助之, 多望風降附. 遂生擒阿波, 『考異』曰: 『隋』突厥傳前云沙鉢略西擊阿波, 破擒之, 後又云‘處羅侯生擒阿波.’ 『長孫晟傳』曰, ‘處羅侯因晟奏曰, 『阿波爲天所滅, 與五六千騎在山谷間伏聽詔旨, 當取之以獻.’ 按前云‘沙鉢略破擒之’, ‘擒’, 衍字耳, 處羅侯云‘當取以獻’, 則是得否未可必, 隋安得豫議其死生乎! 今從『突厥傳』後.] 上書請其死生之命. …”(5489~5491쪽). 『資治通鑑考異』의 내용으로 볼 때, 당시 아파가한을 사로잡은 것은 沙鉢略可汗이 아니라 莫何可汗이라 생각된다.
- 15) 『자치통감』 권179, 隋文帝 開皇 20년(600) 4월 조, “壬戌, 突厥達頭可汗犯塞, 詔命晉王廣·楊素出靈武道, 漢王諒·史萬歲出馬邑道, 以擊之. … 達頭復遣其弟子俟利伐從磧東攻啟民, 上又發兵助啟民守要路. 俟利伐退走入磧. 啟民上表陳謝曰, ‘大隋聖人可汗憐養百姓, 如天無不覆, 地無不載. 染干如枯木更葉, 枯骨更肉, 千世萬世, 常爲大隋典羊馬也.’ 帝又遣趙仲卿爲啟民築金河·定襄二城”(5571~5572쪽).
- 16) 『자치통감』 권179, 문제 인수 3년(603) 是歲 조, “突厥步迦可汗所部大亂, 鐵勒僕骨等十餘部皆叛, 步迦降於啟民. 步迦眾潰, 西奔吐谷渾, 長孫晟送啟民置磧口, 啟民於是盡有步迦之衆”(5600쪽).
- 17) 『자치통감』 권184, 대업 원년(605) 8월 조, “西突厥阿波可汗爲葉護可汗所虜, 國人立鞅素特勒之子, 是爲泥利可汗”(5622쪽).
- 18) 『자치통감』 권184, 대업 원년(605) 8월 조, “泥利卒, 子達漫立, 號處羅可汗. 其母向氏, 本中國人, 更嫁泥利之弟婆實特勒. 開皇末, 婆實與向氏入朝, 遇達頭之亂, 遂留長安, 舍於鴻臚寺. 處羅多居烏孫故地, 撫御失道, 國人多叛, 復爲鐵勒所困”

가혹하고[苛察] 시기심이 많았다. 大業 연간(605~617)에 煬帝를 따라 高[句]麗를 정벌하여 [612년 정월] 曷薩那可汗이라는 칭호를 하사받고 [614년 정월]¹⁹⁾ 종실의 여자(즉 信義公主)를 처로 삼았으며,²⁰⁾ 그의 동생 關達度設을 會寧郡에 남겨 목축을 하게 하자 바로 스스로 關可汗이라고 칭했다.²¹⁾ 江都에서 난이 일어나자²²⁾ 曷薩那가 宇文化及을 따라 黎陽에 이르렀다가 도망가 長安으로 귀순했다. [무덕 원년(618) 7월] 高祖가 걸상[榻]을 내려 주어 함께 앉고 歸義王에 봉했다.²³⁾ 큰 구슬을 황제에게 바쳤으나 황제가 받지 않고 말하기를 “짐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왕의 진심[赤心]이니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였다. 隗炤汗이 말 3천을 가지고 무덕 원년에 내부하자 吐烏過拔關可汗이라는 칭호를 하사하였으나 李軌와 연합하기도 했다. 수의 西戎使者²⁴⁾ 曹瓊이 甘州를 점거하고

(5622쪽).

19) 『자치통감』 권181, 양제 대업 8년(612) 조, “帝分西突厥處羅可汗之衆爲三, 使其弟關度設將羸弱萬餘口, 居于會寧, 又使特勒大奈別將餘衆居于樓煩, 命處羅將五百騎常從車駕巡幸, 賜號曷娑那可汗, 賞賜甚厚”(5622쪽).

20) 『수서』 권4, 양제본기, 대업 10년(614) 정월 조, “甲寅, 以宗女爲信義公主, 嫁於突厥曷娑那可汗”(86쪽). 『수서』 권84, 돌궐전, “處羅從征高麗, 賜號爲曷薩那可汗, 賞賜甚厚. 十年正月, 以信義公主嫁焉, 賜錦綵袍千具, 綵馬匹”(1879쪽).

21) 『수서』 권83, 西突厥傳, “明年(大業8年)元會, 處羅上壽曰 … 詔留其累弱萬餘口, 令其弟達度關牧畜會寧郡”(1879쪽); 『通典』 권199, 邊防, 突厥下, “帝遣裴矩將向氏親要左右往曉諭之, 遂入朝, 詔留其累萬餘口, 令其弟關達設牧畜會寧郡”(1077쪽). 吳玉貴, 『突厥汗國與隋唐關係研究』, 商務印書館, 2017, 41쪽.

22) 『수서』 권5, 恭帝本紀, 101쪽.

23) 『冊府元龜』 권964, 外臣部, 封冊, “唐高祖武德元年(618년)七月突厥冒娑那可汗弟關可汗遣使內附帝厚加慰撫拜爲吐焉過拔關可汗, 十二月突厥曷娑那可汗自宇文化及所來降封爲歸義王”(11337-1쪽); 『자치통감』 권186, 고조 무덕 원년(572년) 12월 조, “以西突厥曷娑那可汗爲歸義王, 曷娑那獻大珠, 上曰 珠誠至寶; 然朕寶王赤心, 珠無所用. 竟還之. 『唐會要』 권94, 西突厥에는 “武德元年八月, 以西突厥曷娑那可汗爲歸義王, 曷娑那獻大珠, 帝曰 珠誠至寶, 然朕寶王赤心, 珠無所用之. 竟還之”(1693쪽).

24) 『수서』 권28, 百官志下, “初煬帝置四方館於建國門外, 以待四方使者, 後罷之, 有

[그를] 유인하자 얼마 있다가 조경과 연합해 함께 이궤를 공격했으나 싸워 이기지 못하고 達斗拔谷으로 도망가 토욕혼과 함께 서로 의지했다가 이궤에게 멸망당했다.²⁵⁾

이전에 갈살나가 수에 내조하자²⁶⁾ 國人들이 모두 원치 않기 때문에²⁷⁾ 얼마 동안 머무르게 하고 보내지 않았는데, 그래서 모두 달두의 손자를 세워 射匱可汗²⁸⁾이라 하였다. 龜茲의 북쪽에 있는 三彌山에 두자 玉門

事則置. 名隸鴻臚寺, 量事繁簡, 臨時損益. 東方曰東夷使者, 南方曰南蠻使者, 西方曰西戎使者, 北方曰北狄使者, 各一人, 掌其方國及互市事. 每使者署, 典護錄事·敘職·敘儀·監府·監置·互市監及副·參軍各一人, 錄事主綱紀. 敘職掌其貴賤立功合敘者. 敘儀掌小大次序. 監府掌其貢獻財貨. 監置掌安置其駝馬船車, 并糾察非違. 互市監及副, 掌互市. 參軍事出入交易”(798쪽).

- 25) 『자치통감』 권185, 무덕 원년(618) 7월 조, “突厥闕可汗遣使內附. 初, 闕可汗附於李軌; 隋西戎使者曹瓊據甘州誘之, 乃更附瓊, 與之拒軌, 爲軌所敗, 竄於達斗拔谷, 與吐谷渾相表裏. 至是內附. 尋爲李軌所滅”(5800쪽). 『구당서』 권194, 突厥傳, “闕達設初居於會寧, 有部落三千餘騎. 至隋末, 自稱闕達可汗. 武德初, 遣使內屬, 拜吐烏過拔闕可汗, 厚加撫慰. 尋爲李軌所滅”(5180쪽).
- 26) 『通典』 권199, 邊防6, 突厥, “煬帝大業六年, 帝將西討吐谷渾, 遣侍御韋節召處羅會於大斗拔谷, 其國人不從, 處羅謝使者, 辭以故. 適會其酋長射匱使求婚, 裴矩因奏曰: 處羅不朝, 自恃強大, 臣請以計弱之, 分裂其國, 則易制也. 射匱者, 都六之子, 達頭之孫, 代爲可汗, 君臨西面, 今聞其失職, 附隸於處羅, 故遣使來以結援耳. 願厚禮其使, 拜爲大可汗, 突厥勢分, 兩從我矣. 帝從之, 遂召其使者, 言處羅不順之意, 稱射匱有小心, 吾將立爲大可汗, 令發兵誅處羅, 然後當爲婚也. 帝取桃竹白羽箭一枝以賜射匱, 因謂之曰: 此事宜速疾如箭也. 使者返, 路經處羅, 處羅愛箭, 將留之, 使者譎而得免. 射匱聞而大喜, 興兵襲之, 處羅大敗, 弃妻子, 將左右數千騎東走, 遁於高昌東, 保時羅漫山. 高昌王麴伯雅上狀, 帝遣裴矩將向氏親要左右往曉諭之, 遂入朝. 詔留其累弱萬餘口, 令其弟闕達設牧畜會寧郡”(5453~5454쪽).
- 27) 『구당서』 권194, 돌궐전, “初, 曷薩那朝隋, 國人皆不欲, 既被留不遣, 乃共立達頭孫, 號射匱可汗.”(5180~5181쪽); 『신당서』 권215, 돌궐전, “初, 曷薩那朝隋, 國人皆不欲, 既被留不遣, 乃共立達頭孫, 號射匱可汗.”(6065쪽). 吳玉貴, 『突厥汗國與隋唐關係研究』, 35쪽.
- 28) 『자치통감』 권187, 무덕 2년(619) 7월 조, “初, 西突厥曷娑那可汗入朝于隋, 隋人留之, 國人立其叔父, 號射匱可汗”(5860쪽). 『구당서』 권194, 돌궐전, “初, 曷薩那

서쪽에 있는 여러 나라가 대부분 속하게 되면서 동돌궐과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²⁹⁾. [617년] 사궤가 죽자 그의 동생 統葉護가 잇게 되니 이가 統葉護可汗이 되었다.

통엽호가한은 용감하고 지모가 있어 싸울 때마다 이겼기 때문에 鐵勒³⁰⁾을 병합하고, 波斯·罽賓을 아래에 두었으며[下], 궁사[控弦]가 수십 만이었다. 아정을 石國 북쪽의 千泉³¹⁾으로 옮겨 마침내 西域諸國을 제패했으며 모두에게 頡利發³²⁾을 제수하고 한 명의 吐屯에게 명하여 감시·통제를 하고 부세 수입을 감독하게 하였다.³³⁾ [619년 8월] 射匱³⁴⁾가 사자

之朝隋也，爲煬帝所拘，其國人遂立薩那之叔父，曰射匱可汗”(5181쪽).

29) 『수서』 권84, 돌궐전, “東夷諸國，盡挾私讎，西戎羣長，皆有宿怨。突厥之北，契丹之徒，切齒磨牙，常伺其便。達頭前攻酒泉，其後于闐·波斯·挹怛三國一時即叛。沙鉢略近趣周槃，其部內薄孤·束紇羅尋亦翻動。往年利稽察大爲高麗·靺鞨所破，娑毗設又爲紇支可汗所殺。與其爲鄰，皆願誅剿。部落之下，盡異純民，千種萬類，仇敵怨偶，泣血拊心，銜悲積恨”(1866~1867쪽).

30) 『구당서』 권194, 돌궐전, “初，大業中，西突厥處羅可汗始強大，鐵勒諸部皆臣之，而處羅徵稅無度，薛延陀等諸部皆怨，處羅大怒，誅其酋帥百餘人。鐵勒相率而叛，共推契苾哥楞爲易勿真莫賀可汗，居食汗山北，又以薛延陀乙失鉢爲也啞小可汗，居燕末山北。西突厥射匱可汗強盛，延陀、契苾二部並去可汗之號以臣之”(5343~5344쪽).

31) 『자치통감』 권199, 고종 영휘 2년(650) 조의 호삼성 주 “千泉屬石國界，又在賀魯牙帳西南。新書曰：素葉城西四百裏至千泉，地贏二百裏，南雪山，三垂平陸，多泉地，因名之”(6273쪽).

32) 『자치통감』 권176, 陳 長城公 至德 2년(581) 조의 호삼성 주, “突厥子弟曰特勒，大臣曰葉護，曰屈律啜，曰阿波，曰俟利發，曰吐屯，曰俟斤，曰閻洪達，曰頡利發，曰達干，皆達官也”(5476쪽).

33) 『구당서』 권194, 돌궐전, “統葉護可汗，勇而有謀，善攻戰。遂北并鐵勒，西拒波斯，南接罽賓，悉歸之，控弦數十萬，霸有西域，據舊烏孫之地。又移庭於石國北之千泉。其西域諸國王悉授頡利發，并遣吐屯一人監統之，督其征賦。西戎之盛，未之有也”(5181쪽).

34) 『구당서』 돌궐전에 의하면, 철륵을 병합한 것은 통엽호가함이 아니라 사궤가한 이다(吳玉貴, 『突厥汗國與隋唐關係研究』, 239쪽).

를 보내 왔는데, 갈살나³⁵⁾가 대대로 원수라 죽이자고 청했으나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한 사람을 살리고 한 나라를 잃게 되면, 훗날 또한 우한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秦王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귀순했으니 우리가 죽이면 상서롭지 않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또한 진왕의 말을 듣지 않고 궁궐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주연이 무르익을 때 갈살나가 中書省에 이르니 멋대로 사자가 [갈살나를] 죽이고 말하지 않았다.³⁶⁾

사궐(즉 통엽호가한)가 또한 매년 계속 條支의 큰알·사자가죽 등을 바치자 황제가 두렵게 신명한 것을 위무하고 교제[結] 하면 함께 그와 힘을 합쳐 동돌궐을 토벌할 것을 약속했다. 통엽호가한이 기일을 청하자 힐리가 크게 두려워하여 함께 우호를 맺고[和] 서로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³⁷⁾

-
- 35) 『구당서』 권194, 돌궐전, “處羅可汗, 隋煬帝大業中與其弟闕達設及特勤大奈入朝, 仍從煬帝征高麗, 賜號爲曷薩那可汗”(5180쪽).
- 36) 『자치통감』 권187, 무덕 2년(619) 8월 조, “西突厥曷娑那可汗與北突厥有怨, 曷娑那在長安, 北突厥遣使請殺之, 上不許. 羣臣皆曰 ‘保一人而失一國, 後必爲患!’ 秦王世民曰 ‘人窮來歸, 我殺之不義.’ 上遲迴久之, 不得已, 丙戌, 引曷娑那於內殿宴飲, 既而途中書省, 縱北突厥使者使殺之”(5865쪽); 『通典』 권199, 邊防, 突厥傳, “自處羅朝隋後, 射匱遂有其地. 處羅既先與始畢有隙, 及在京師, 始畢遣使請殺之, 高祖不許. 羣臣諫曰: ‘若不與, 則是存一人而失一國也, 後必爲患.’ 遲迴久之, 不得已, 乃引曷薩那可汗於內殿, 與縱酒, 既而送至中書門下省, 縱北突厥使殺之. 太宗即位, 令以禮改葬”(5454쪽).
- 37) 『구당서』 권194, 돌궐전, “武德三年(620년), 遣使貢條支巨卵. 時北突厥作患, 高祖厚加撫結, 與之并力以圖北蕃, 統葉護許以五年冬. 大軍將發, 頡利可汗聞之大懼, 復與統葉護通和, 無相征伐. 統葉護尋遣使來請婚, 高祖謂侍臣曰 ‘西突厥去我懸遠, 急疾不相得力, 今請婚, 其計安在?’ 封德彝對曰 ‘當今之務, 莫若遠交而近攻, 正可權許其婚, 以威北狄. 待之數年後, 中國盛全, 徐思其宜’ 高祖遂許之婚, 令高平王道立至其國, 統葉護大悅. 遇頡利可汗頻歲入寇, 西蕃路梗, 由是未果爲婚”(5181쪽).

[무덕 8년(625) 4월] 통엽호가한이 와서 청혼을 하자³⁸⁾ 황제가 군신과 모의하여 “서돌궐은 우리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급한 일이 있어도 의지할 수 없는데, 그와 혼인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封德彝가 말하기를 “지금의 편리함만을 생각한다면, 먼 곳과 친교를 맺고 가까운 곳을 공격 한 것만 못하니 청컨대 청혼을 들어주어 北狄을 두렵게 하시고, 우리가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이후에 도모하소서.”라고 하였다.

[무덕 9년(626) 4월] 황제가 이에 결혼을 허락하고 조서를 내려 高平王 [李]道立에게 그 나라에 가게 하니 [정관 원년(627) 12월] 통엽호가한이 기뻐하며 真珠統侯斤에게 이도립과 함께 돌아가게 하였고 萬釘寶鈿金帶와 말 5천 필을 바쳐 약속으로 삼게 하였다. 마침 동돌궐이 해마다 변경을 침범해 서쪽으로의 길이 막히자 다시 힐리가 [통엽호가한에게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만약 당의 공주를 맞이하려면 반드시 나에게 길을 빌려야 하는데, 내가 장차 [공주를] 억류할 것이다.³⁹⁾”라고 하였다. 통엽호가한이 병이 나서 혼인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⁴⁰⁾. 바야흐로 자신의 강함만을 믿고 은혜롭게 도와 결속시키지 못하였으니 무리가 원통하여 대부분 이반하여 떠나버렸다. [정관 2년(628) 12월 그의 숙부 莫賀咄이

38) 『자치통감』 권187, 무덕 8년(625) 4월 조, “西突厥統葉護可汗遣使請婚, 上謂裴矩曰: 西突厥道遠, 緩急不能相助, 今求婚, 何如? 對曰: 今北狄方強, 爲國家今日計, 且當遠交而近攻, 臣謂宜許其婚以威頡利: 俟數年之後, 中國完實, 足抗北夷, 然後徐思其宜. 上從之”(5995쪽).

39) 『자치통감』 권187, 태종 정관 원년(627) 12월, “西突厥統葉護可汗, 遣真珠統侯斤與高平王道立來, 獻萬釘寶鈿金帶, 馬五千匹, 以迎公主. 頡利不欲中國與之和親, 數遣兵入寇, 又遣人謂統葉護曰 ‘汝迎唐公主, 要須經我國中過.’ 統葉護患之, 未成婚”(6046쪽).

40) 『구당서』 권194, 突厥傳, “貞觀元年(627년), 遣真珠統侯斤與高平王道立來獻萬釘寶鈿金帶, 馬五千疋. 時統葉護自負強盛, 無恩於國, 部衆咸怨, 歌邏祿種多叛之, 頡利可汗不悅中國與之和親, 數遣兵入寇, 又遣人謂統葉護曰 ‘汝若迎唐公主, 要須經我國中而過, 統葉護患之,’ 未克婚. 爲其伯父所殺而自立, 是爲莫賀咄侯利俟毗可汗”(5182쪽).

통엽호가한을 죽이니]⁴¹⁾ 황제가 玉帛을 가지고 가게 하여 그 나라의 禘祭에 쓰게 하려 하였으나 마침 어지러워 결국 하지 못하였다.

41) 『자치통감』 권187, 태종 정관 2년(628) 12월, “西突厥統葉護可汗爲其伯父所殺; 伯父自立, 是爲莫賀咄侯屈利俟毗可汗”(6061쪽).